최종 작성일. 2014년 7월.

1. 푸코 입문

푸코에 관련된 기본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푸코의 원전에 대한 번역 및 우리나라 저자에 의한 저서, 논문은 아주 많고 질도 천차만별인데요, 우선 푸코의 원전 혹은 푸코에 대한 연구서의 저자 및 역자들로는 다음의 분들이 믿을 만합니다.

심세광 선생님의 번역과 저작들은 아주 좋고요, 이규현 선생님의 번역도 크게 보아 무난합니다. 이정우 선생님의 경우 저작이 도움이 됩니다. 다른 좋은 분들도 있지만,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이 정도이고요.

비전공자와 초보자를 위한 가장 좋은 입문은 제가 참여하여 좀 민망하지만, 그래도 동녘의 <처음 읽는 프랑스현대철학>이 아주 좋은 기획이라 강추합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72976911&start=slayer

한국에 우리나라 저자가 쓴 입문용 글은 이 글과 조만간(2014년 8-9월?) 창비에서 나올 <프랑스현대사>(근간)의 두 권이 유일한데, 모두 제가 쓴 것입니다.

그리고 알라딘에서 서양철학로드맵 <철학, 책>을 무료로 이북(과 종이책)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주소는 다음입니다. 역시 제가 작성했습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events/wevent_common.aspx?pn=2014_philosophia_sub&AuthorId=15143

경희대학원보에도 '테마서평 -미셸 푸코의 <성의역사>: 개인의 성 정체성이라는 정치적 문제'라고 제가 기고한 글이 있는데 <성의 역사>에 대한 간략한 입문입니다.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.

www.khugnews.co.kr

그리고 푸코에 관련된 동영상은 국립극단에서 제가 행한 강연이 유튜브/구글에 올라있습니다. 4강이 푸코입니다.

www.youtube.com/results?search_query=%EA%B5%AD%EB%A6%BD%EA%B7%B9%EB%8B%A8+%ED%97%88%EA%B2%BD

푸코 자신의 책들 중 입문용으로는 그의 가장 논쟁적인 저작이자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<감시와 처벌>(2003년 수정판, 나남, 오생근 역)을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, 그 외 중요 저작인 <광기의 역사>(단, 나남 번역본으로), <말과 사물>(2012년 새로 나온 이규현 번

역으로), <지식의 고고학>, <담론의 질서>, <성의 역사>도 보시면 좋고요.

그리고 1954년에 출간된 <정신병과 인격>(국내 미번역)을 푸코 자신이 개작하여 1962년에 새로 출간한 <정신병과 심리학>(문학동네)은 그 2부가 푸코 자신에 의해 그 지난해인 1961년에 나온 <광기의 역사>의 가장 좋은 요약이라 칭해지고 있고요, 번역도 무난합니다.

푸코의 <콜레주 드 프랑스> 강의록들은 모두 무난한 좋은 번역들인데, 최근 난장 출판사에서 전권이 다시 재번역되어 나오고 있으니 난장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.

다음으로 푸코에 대한 소개, 입문들인데, 우선 뭐니뭐니 해도 그린비에서 최근 다시 출간된 <미셸 푸코, 1926~1984>(2012)가 가장 좋은 입문이고요, 다음 전기류로는 인간사랑에서 나온 <미셸 푸코의 수난>이 좋습니다. 그 외,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최근 새로 나온 김현 선생님의 <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> 번역 아주 좋고요, 그 외 박정자 선생님의 푸코 관련 서적들도 무난하고 좋은 책들입니다.

외국저자의 것으로는 지금은 절판되어 조금 구하기 어렵지난 시공사에서 나온 메르키오르의 <푸코>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되고요, 하우 투 리드 시리즈의 <푸코>(웅진지식하우스)도 무난하고, 열린책들에서 최근 심세광 선생님의 번역으로 나온 <미셸 푸코의 휴머니즘>도 좋습니다만 약간 고급 입문입니다.

그리고 푸코의 연대기는 최근 심세광 선생님의 번역팀인 오트르망의 번역으로 나온 푸코 <말과 글>(Dits et ecrits)의 <연보>를 번역한 다음 4편의 글이 매우 유용하고요(링크는 그 중 제1편의 주소),

http://www.greenbee.co.kr/blog/1685

그 외에도 이 그린비블로그에는 푸코 관련글들이 엄청 많고요,

http://www.greenbee.co.kr/blog/search/푸코

일단 이 정도고요, 우선 이것만 읽으시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...

한편 <<광기의 역사>>에 등장하는 푸코의 데카르트 <<성찰>>에 관한 푸코/데리다 논쟁이 가장 일목하게 논점들이 정리된 좋은 국내 논문은 시립대 철학과 차건희 선생님이 최근 발표한 <데카르트와 광기>입니다. 고대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<철학연구> 45집(2012년 3월)에 실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푸코를 전공하신 홍은영 선생님의 논문 <'성찰하는 주체'는 미칠 수 없는가? - 데카르트적 광기 배제에 대한 푸코와 데리다의 논쟁>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는 한국해석학회의 학회지<<해석학 연구>> 제12집, 2003에 실려 있습니다.

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 한국의철학회에서 푸코 사상 특집을 했더군요.

http://www.philomed.or.kr/board/view.php?forum=notice&num=192&sk=&st=&page=&eq1=&eq2=&eq3=&eq4=&eq5=

그리고 여기서(빠른 검색창에서) 푸코를 치면 논문이 3개가 뜹니다.

http://www.philomed.or.kr/page/page.php?p=b2

재미있는 논문들이네요. 한편 <<말과 사물>>에 대해서는 양운덕의 <칸트와 푸코 - 푸코의 칸트 읽기> 논문이 탁월합니다. 한국칸트학회에서 펴낸 <<포스트모던 칸트>>(문학과지성사)에 실려 있습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32016704

양운덕의 살림총서 <<푸코>>도 무난한 입문용으로 얇고 가벼운 좋은 책입니다. 그리고 <<말과 사물>>만을 다룬 좋은 책으로는 개리 거팅의 <<미셸 푸코와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>>(백의)이 좋은데 현재는 절판이네요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80260482

<<광기의 역사>> 관련은 가장 좋은 것은 프랑스에서 열린 출간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으로 데리다, 캉길렘 등 석학들이 참여한 <<광기의 역사 30년후>>(시각과 언어)이고, 프레데릭 그로의 <<푸코와 광기>>는 아주 좋은데, 좀 상당히 문학적, 철학적, 심리학적 전문적입니다. 그리고 위에서 이미 말씀 드린 대로 푸코 자신의 1962년작 <<정신병과 인격>>의 2부는 저자 자신에 의한 <<광기의 역사>> 전체의 탁월한 요약으로 간주됩니다. 또 푸코가 편집하고 서문을 쓴, 그리고 역자 심세광의 탁월한 해설이 첨부된 <<내의 어머니, 누이, 남동생 ... 을 죽인 나, 피에르 리비에르>>(앨피)도 아주 좋습니다. 재미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,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. 한번 꼭 보십시오. 그 외, 관련서로는 피에르 작세름의 <<광기 없는 사회가 존재하는가?>>(동화문화사, 절판...), 데카르트의 <<성찰>>에 나타난 광기의 지위에 관한 데리다/푸코 논쟁을 다룬 <<데리다와 푸코>>(인간사랑)는 좋은 책인데 불행히도 국역본의 번역이 좀 함량미달입니다...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...

그리고 푸코 사유의 기반이 되는 의학사가 조르주 캉길렘의 '정상과 병리'는 번역본이 두 개입니다. 이광래의 <<정상과 병리>>(한길사), 여인석의 <<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>>(인간사랑)인데, 후자에는 푸코가 직접 쓴 영역판 서문이 함께 번역되어 있습니다.

그리고 조만간 출간될 저의 <<미셸 푸코 - 개념의 고고학>>(그린비)에도 개념 해설 용도의 입문적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.... 그리고 저의 학위논문 번역인 <<미셸 푸코와 근대성>>도 그린비에서 조만간 나올 듯한데, 기대해 주시고요, 제가 길 출판사에서 번역중인 <<미셸 푸코 선집>>은 총 3권인데 우리나라 번역본이 함량 미달인 것이 워낙 많아서 늘

불만이었는데, 제가 상당량의 논문/저작을 이 책에서 다시 번역하게 되어 한편으론 부담스럽지만 무척 기쁘기도 합니다.

그리고 <<담론의 질서>>는 최근 새길에서 나온 2011년 개정판을 구입하시면 됩니다(이 책의 국역본 초판은 1993년 새길이고, 1998년 서강대출판부 판도 있으나 모두 같은 역자 이정우에 의한 책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)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70339523

푸코의 폴리차이비센샤프트 혹은 의학적, 보건적 사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다음의 책이 고전적인데 절판이네요, 그래도 도서관 등에서 읽으실 수 있으실 테니 링크를 걸어보면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5000021358

이외 이진경(박태호)와 수유공간너머의 작업은 대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지요. 의학 보건 복지 등에 관련된 푸코 관점은 - 좋지 않은 번역이지만 - <<권력/지식>>(나남, 절판)에 수록된 <18세기 질병의 정치학>과 그 외 이 책의 10-12장인데요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30031765

아, 이 책도 절판되었군요... 그래도 워낙 유명한 책이니 도서관이든 어디든 상대적으로 쉽게 구해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. 그리고 심세광 선생님이 번역하신 <<나의 어머니, 나의 누이, 나의 남동생을 죽인 ... 나, 피에르 리비에르>>(앨피)도 정신의학의 근대적 탄생을 다룹니다. 아주 좋은 번역이고요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92151233

한편 푸코와 촘스키 논쟁은 아주 좋은 논쟁이고 연구해볼만한 두 석학의 논쟁인데 우리나라에 좋은 번역본이 있지요. 초심자에게 푸코 사유의 근본을 알게 해주는 좋은 입문서로 추천합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59401943

그리고 아래 <루이 뷔통이 된 푸코>도 푸코만이 아니라 동시대 프랑스 사상이 미국에 수입된 사회학적 지적 지형도를 그려보여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94769048

역사와 관련하여 푸코 입문의 높은 수준으로는 다음 폴 벤느의 책이 아주 좋습니다. 사실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01100215

그리고 역시 폴 벤느의 다음 책 말미에 부록으로 실린 <역사학을 혁신한 푸코>는 위 책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, 아주 좋습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55591292

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번역했지만 역시 푸코 해석의 최강자는 들뢰즈의 <푸코>입니다. 하지만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... 최소 대학원생 이상은 되셔야 감이 잡히실 듯... 언젠가 제가 강독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만, 현재는 절판이지만 조만간 그린비에서 새로 수정보완하여 다시 내고자 합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80382812

그리고 푸코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목소리라는 것 정도로... 다름 아닌 바로 위 책의 실제 대담인 네덜란드 티비의 1971년 촘스키/푸코 논쟁 동영상입니다.

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kawGakdNoT0

다음은 푸코 심포지엄 관련 매체 기사들입니다.

순서대로 교수신문 - 진태원 선생님 기고,

http://www.kyosu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732

교수신문 기사

http://www.kyosu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681

서동진 선생님 - 동아 기고,

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20218/44140939/1

이글의 원문:

http://www.greenbee.co.kr/blog/1688?category=0

연합,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01&aid=0005510881

한겨레,

http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religion/520146.html

경향,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202212023575&code=960201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202212025125&code=960201

서울

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20222021006

문화일보입니다.

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2022301032530021007

이렇게 보니 꽤 많군요... 2012년 경인가 푸코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푸코가 참 잘못 알려졌구나, 제가 내려는 책이 아주 무의미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, 제가 내려고 하는 책 중 이런 푸코에 대한 오해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기사가 있

습니다. 제가 한국 사회에 '기여'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글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...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, ... 라고 쓰고 교수신문을 클릭하니 구독자 전용 유료 컨텐츠라네요... 제 글도 제가 돈 내고 봐야 하다니, 하고 검색을 해보니 로쟈님께서 이 글을 퍼다 놓으셨네요.

http://blog.aladin.co.kr/mramor/4295212

이건 같은 발표에 대한 경향 기사인데 전체적으로 좋은 기사이지만 좀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...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012071210091&code=960201

말나온 김에 심세광 선생님의 교수신문 푸코 관련 기고

http://www.kyosu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716

2. 바슐라르와 프랑스/영미 과학철학

바슐라르 자신의 글은 일단 국내에 그래도 상당히 번역되어 나왔는데 저도 다 안 읽어서 뭔지 잘 모르고요 (알라딘 같은 곳에서 검색창에 바슐라르를 치면 바슐라르 자신의 글 + 그에 대한 글 해서 총 26권 정도 뜨네요), 아니라면 푸코나 프랑스 과학철학 부분에서 종종 간략히 나옵니다. 가장 좋은 입문서는 단연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70331689

인데, 지금 보니 품절이네요... 그래도 결국은 구하실 수 있으실테니 읽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. 아니면 프랑수아 도스의 <조각난 역사>(푸른역사), 메르키오르의 <미셸 푸코>(시공사) 등인데 역시 모두 품질이네요... 이 책은 아날 학파에 관한 아주 좋은 입문서이지요. 아날학파에 속하는 개별적 저자들의 저술은 번역된 것이 엄청나지요. 그 외의 입문서는 김응종의 <아날학파>(민음사), <미시사의 즐거움>(돌베개), 그리고 다음 책 정도입니다.

http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SBN=8988791924

혹은 인터넷 서점 등에서 미시사를 치면 됩니다. 아날학파는 서양중심주의의 반동적인 인물

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학파로서는 탁월한 족적을 남기고 있지요.

한편 도미니크 르쿠르 책은 원래 좀 어렵지요. 바슐라르와 캉길렘은 프랑스 과학철학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. 이정우 선생님이 번역하거나 쓴 책을 검색해보시면 관련 기초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.